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編輯人 宋景太
印刷人 金政坤
編輯局長 裵永斗

發行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 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5-9551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長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7-8133 사무실

行政및生産指導委員會 8월 1일 發足

公信力함양을 爲한 行政지도 重點

生産實績 파악에 集中的 노력!

協會는 今年度定總과 第9代會長 選出이라는 主要事案을 無難히 마무리 지은 後 基本的事業계획 以外에 重要현안 문제를 檢討하던 中 今年度 第2次 理事會에서 이들 현안문제를 토의끝에 3個事業方針을 追加로 선정한 바 있다. 그 세가지를 例擧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今年 9월中旬頃이면 第3次 安定基金이 확보종결 될것으로 展望하고 秋季 수확기를 맞아 生産會員및 農家보호 對策을 爲한 유통조절 事業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는 品貫현상 또는 고갈되어가는 自然生藥草中 選別하여 栽培기술을 研究、대중性있는 品種으로 開發시켜 나가면서 現 재배品種中 國際경쟁력이 높은 우수品種은 生産장려및 品質管理 向上에 전문적 지도력을 경주할수 있도록 하는 전문技術人力으로 구성되는 재배기술 분과 委員會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이를 爲하여 現在 本部에서 人的要素 確保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세째는 協會는 23年의 경륜을 쌓아왔다고 하지만 行政體制面이나 통괄능력面에서 애매모호한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다. 非營理法人體의 공통된 관행이라고 생각되지만 결코 이대로 방관하여서는 先進化 社會의 余件에 부응해 나갈수 없을 뿐더러 퇴보를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협회는 보다 強化된 단합된 통괄력을 발휘하고 행정및 생산지도체제를 쇄신하기 위하여 各市·道支部 관하에 상주 지도委員을 두어 定期또는 非定期的으로 本部와 合同하여 지도 是正점검을 實施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는 8月1日로 發足되는 指導委員會 지방상주 委員 멤버와 主要任務는 다음과 같다.

·중앙委員長 : 수석副會長 이종용

·지방상주委員

강원도 : 행정지도 인제군소장 이종렬, 생산지도 원주군소장 전승표

경기도 : 행정지도 양평군공판장 김현록, 생산지도 이천군소장 김성배

충북도 : 행정지도 진천군소장 이지대, 생산지도 제원군소장 이한섭

충남도 : 행정지도 예산군소장 성백덕, 생산지도 공주군소장 이기범

전북도 : 행정지도 무주군소장 김병조, 생산지도 장수군소장 정연수

전남도 : 행정지도 승주군소장 나한주, 생산지도 광양군소장 장영철

경북도 : 행정지도 대구수성구소장 박건수, 생산지도 군위군소장 박원섭

경남도 : 행정지도 충무시소장 이영각, 생산지도 합천군소장 백문기

제주도 : 행정지도 도지부장 김봉국, 생산지도 북제주군소장 강경휴

부산시 : 행정지도 사하구소장 김철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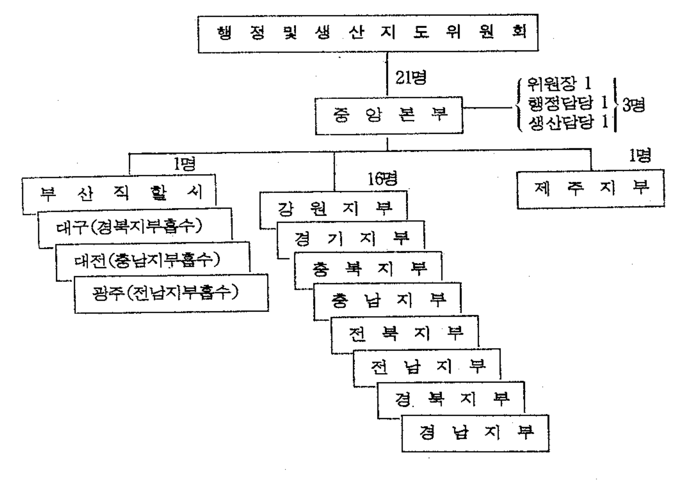
협회본부 : 행정지도 총무부장, 생산지도 기획실장

·委員會 任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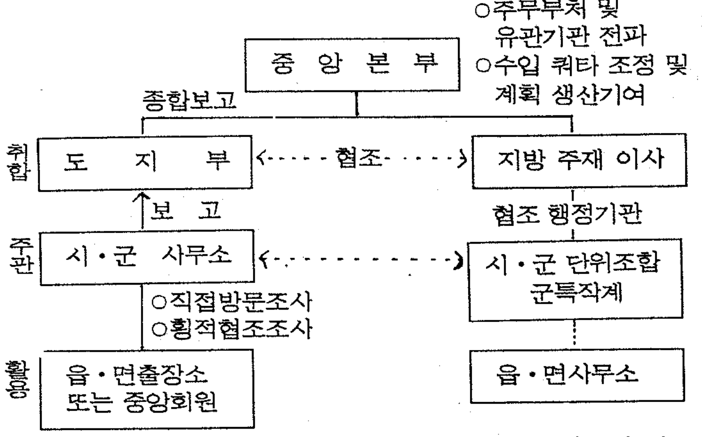
·행정지도위원 : ①협회제규정숙지 ②관하 모든 분사무소 및 회원의 위배사항 점검및 시정

·생산지도위원 : ①관하 생약생산 관리지도 ②관하 생산실적파악및 계통출하유도

社會與件의 先進化 추세에 副應하기 爲하여 名實相符한 公益團體로서의 면모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생약 생산 실적 파악 및 보고 체계



※보고양식 : 지역별·품종별·생산량(근, 또는 KG)면적, 비고

連載 韓方순례 >25<

<續>

둘째, 코의 빛깔이 누르면서 붉은빛을 띠면 이는 열이 오르고 있는 징조이다.

세째, 코끝이 희어지면 몸에 한기가 침범당하는 징조이므로 이때는 한기에 저항하기 위해 코의 양쪽 옆을 엄지손가락으로 마찰해주면 이 한기의 침범은 예방하여 감기가 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네째, 알콜에 중독되면 속칭 딸기코, 즉 콧방울이 빨개지고 붓는다. 물론 이 증상이 아니더라도 알콜의 중독은 본인이 즉시 알겠지만 알콜중독의 피해를 상식으로라도 알고 있다면 이를 치유키 위해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만일 술을 과음하지 않는 사람이 코가 붉어진다면 이는 간장과 비장에 이상이 오는 징조이므로 신속하게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입술을 통한 진단

1、입술은 비장과 위의 거울이다.

흔히 미의 기준을 여성의 경우 선(線)에만 둘 때 그 미를 직접 향유하거나 이에 참여한다면 그 기준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다는 것을 느끼는 예를 흔히 본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미는 선과 색과 깊이에 두는 것이 원칙이며 더 나아가서는 인격에 까지 연장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하여 단순배치(입술은 붉고 이는 희어야 한다)하면 색과 건강에 관련되는 미의 기준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즉 건강한 사람은 입술의 혈색이 붉고 입술의 혈색이 검푸르든지 희면 극히 어느 관련된 장기에 또는 몸전체의 건강에 적신호를 던져 준다고 보아야 한다.

즉, 비장이 약하면 입술을 놀리는 움직임 자체가 탄력을 상실하여 밥 속에 든 돌을 골라내는 작용이 미숙해진다든지 입술에 붙은 밥알같은 것을 처리하는 때에도 극히 부자유스러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경험방(經驗方)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즉,

<3면으로 계속>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
◇충청남도지부

(祝) 發展

지부장 문대규
당진군 사무소장 최동진
서산군 〃 이영래
예산군 〃 성백덕
공주군 〃 이기범
청양군 〃 조병섭
보령군 〃 박종완
부여군 〃 심만식
연기군 〃 박순일
(공판장장겸직)
금산군 〃 김기복
(공판장장겸직)
논산군 〃 이문섭
온양시 〃 윤동찬
공주시 〃 이계년
대천시 〃 심관섭
서천군 〃 박우철
아산군 〃 박의규
논산군 공판장장 조금자